

대학생의 대학적응, 인성, 의사소통능력이 현장실습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

제남주¹, 박미라¹, 화정석^{2*}

¹창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²경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Effects of college students' adjustment, Character,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n field practice adaptation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competence

Nam-Joo Je¹, Mee-Ra Park¹, Jeong-Seok Hwa^{2*}

¹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angshin University, Changwon.

²Professor, Department of Urolog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and Institute of Health Scienc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요 약 본 연구 목적은 대학생의 대학적응, 인성,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 유능성이 현장실습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G도의 J시와 C시에 소재한 대학교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 23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SPSS/WIN 20.0를 이용하여 Baron & Kenny의 3단계 절차를 이용한 다중회귀분석과 Sobel test를 이용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현장실습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은 대학적응($\beta=.22, p=.003$)과 대인관계 유능성($\beta=.38, p<.001$)이었으며, 인성과 의사소통능력은 현장실습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beta=.02, p=.740$), ($\beta=.04, p=.590$)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대인관계 유능성을 통한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beta=.15, p=.004$), ($\beta=.19, p=.011$). 인성과 의사소통능력이 대인관계 유능성을 매개로 현장실습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대학에서 바람직한 인성교육과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마련이 중요하다.

주제어 : 대인관계, 의사소통, 인성, 적응, 현장실습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college adjustment, character,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n field practice adaptation of college student. Subjects were 231 nursing students and medical students in J city and C city, G-do. Using SPSS/WIN 20.0,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Baron & Kenny's three-step procedure and Sobel test were used to verify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or effect. The variables directly affecting field practice adaptation were college adjustment ($\beta=.22, p=.003$)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beta=.38, p<.001$). Character and Communicative competence did not have a direct affect on field practice adaptation ($\beta=.02, p=.740$), ($\beta=.04, p=.590$) but indirect effect through interpersonal competence was significant($\beta=.15, p=.004$), ($\beta=.19, p=.011$). As character and communicative competence are the variables affecting field practice adaptation through interpersonal competence, training programs to improve character,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in college are needed.

Key Words : Adjustment, Character, Communicative, Field practice, Interpersonal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Changshin University Research Fund of 2018(Changshin-2018-29).

*Corresponding Author : Jeong Seok Hwa(seogee@gnu.ac.kr)

Received July 18, 2019

Revised August 21, 2019

Accepted September 20, 2019

Published September 28, 201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임상현장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토대로 실제 임상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실무에 참여하는 과정이다[1]. 또한, 치료나 간호중재를 적용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하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교육방법이다[2]. 예비의료인인 의과대학생과 간호대학생은 임상현장실습을 통해 환자를 대상으로 실제 상황을 경험하게 하는 훈련을 하고, 졸업 후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실습동안 임상현장에서 숙련된 지도자의 도움을 받는다[3]. 또한, 이 과정을 통해 다양하고 복잡한 특성을 지닌 환자나 보호자와 의사소통과 대인관계를 하고, 예비의료인으로서 전공 지식에 근거한 올바른 의사결정, 신속하고 정확한 문제해결 및 업무 수행 등을 요구받는다. 그리고, 임상실습을 하면서 처음 경험하게 되는 병원환경에서 긴장감을 느끼고, 본인에 대한 미숙함과 부족함을 인식하게 될 수 있다. 이들은 엄격한 윤리의식과 책임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출되므로 이로 인해 다른 학과 대학생들보다 대학생활 적응이 더 어려울 수 있다[4]. 그로인해 결국 전공에 대한 회의감으로 전공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발생할 수 있다[5].

인성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으로,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변화와 각박한 사회에서 인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료현장과 산업체 등에서도 인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6]. 의학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의학은 급속도의 발전으로 환자를 기계적이고 상업적으로 취급함으로써 인간성을 상실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러한 비판에 대한 대안으로 의료현장에서는 전인적 치료와 간호를 강조하고 있으며, 의학교육에서도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7].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의 인성은 전문직관, 비판적 사고, 대인관계능력을 높이며, 대학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8], 바람직한 인성은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의 대학적응과 전문직관 확립에 주요한 요인으로 생각된다.

최근 많은 분야에서 원활한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의료분야에서는 인간을 대상으로 면대면 만남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의학교육에서도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는 실정

이다[9].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은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 환자, 가족, 동료와의 친밀한 대인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또한 대인관계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원천이며, 상호작용의 질을 좌우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10]. 또한, 대학교에서 형성된 대인관계 유능성이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의 대인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활에서 만족스러운 대인관계 유능성이 절실하다[8].

의학교육에서는 의사가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으로 자기개발이나 관리뿐만 아니라 동료와의 신뢰감 있는 대인관계를 강조하고 있으며, 다학제간의 협력과 소통을 통한 의료시스템에서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술은 매우 중요한 자질이며 환자나 가족을 잘 돌보고 의사결정을 이끌 수 있다[11]. 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간호사의 핵심역량 7개를 학부과정에서 갖추도록 제시하였고, 전문분야 간 협력관계와 치료적 의사소통 기술의 핵심역량은 대인관계 능력이며 의사소통능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12]. 사회진출의 전 단계이며 준비단계인 대학에서는 전공관련 지식교육과 더불어 사회생활에 필요한 요소인 의사소통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이러한 능력을 키우고 함양하기에는 내용이나 짜임새가 부족하고 대학생들은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대학적응에 미치는 여러 변수 중 인성, 대인관계, 의사소통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간호대학생과 의대생은 예비의료인으로서 대학적응뿐만 아니라 임상현장실습이라는 필수적인 교육과정을 거치게 되며 현장실습적응에 대한 영향요인을 살펴본 논문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적응, 인성,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 유능성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가 현장실습적응에 미치는 경로를 분석하여,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들의 현장실습적응 방안을 마련을 위해 시행하였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대학적응, 인성,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 유능성 정도가 현장실습적응에 미치는 경로를 분석하여 인과관계를 확인함으로써 현장실습 적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의 대학적응, 인성,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 유능성 정도와 현장실습적응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

둘째,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의 대학적응, 인성, 의사소통능력이 현장실습적응에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셋째,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의 대학적응, 인성,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 유능성 정도가 현장실습적응에 미치는 요인들의 직·간접효과를 분석한다.

2. 이론적 배경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현장실습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토대로 현장실습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현장실습적응은 대인관계 갈등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14], 대인관계 유능성은 현장실습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임상실습(현장실습)스트레스와 의사소통능력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15]는 연구를 토대로 현장실습적응과 의사소통능력의 관계가 파악되었다. 대학생활 적응 정도와 인성간의 관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고, 대학생활 적응과 대인관계 정도 간의 관계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9].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고[16], 의사소통능력은 임상실습(현장실습)스트레스와 상관관계가 있다[17]. 인성과 대인관계문제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고 인성이 임상현장에서 원만한 대인관계형성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요인을 확인하였다[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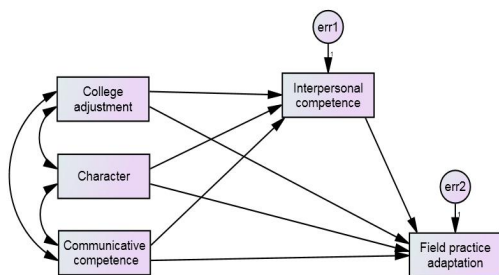


Fig. 1. Conceptual framework

따라서 선행연구 결과를 기초로 대학적응, 인성, 의사소통을 외생변수로 설정하고, 대인관계 유능성, 현장실습적응을 내생변수로 설정하여 개념적 기틀을 구성하였다. 대학적응, 인성, 의사소통은 현장실습적응에 직접적 영향을 주거나, 대인관계 유능성을 경유하여 현장실습적응에

간접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경로를 설정하였다. 대인관계 유능성은 현장실습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 설정하였다. 제시된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Fig. 1과 같다.

3. 연구방법

3.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의 현장실습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요인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개념적 틀을 도출하고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3.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G도의 J시와 C시에 소재한 대학의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을 편의추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9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였으며, G*power 3.10 프로그램[19]을 이용하여 효과크기(effect size) .25(중간), 유의수준(α) .05, 검정력($1-\beta$) .80로 산출한 결과, 적정표본 크기의 최소 인원은 216명으로 산출되었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2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중 응답이 부실한 9부를 제외한 231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3 연구도구

3.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선행연구[20]에서 사용한 문항을 참조하여 연령, 성별, 종교, 휴학여부, 동아리 활동여부, 학년, 거주환경, 부모님 경제력, 성격, 학과 선택이유, 대학 적응, 면담이나 상담 횟수, 대인관계, 현장실습 만족도, 전공 만족도, 지난학기 성적 등 총 16문항으로 측정할 것이다.

3.3.2 대학적응

대학적응은 Jung과 Park[21]이 개발한 대학적응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5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인관계 4문항, 학업활동 4문항, 진로준비 4문항, 개인심리 4문항, 사회체험 3문항, 전체 19문항으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적응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 Cronbach's $\alpha=.70-.86$ 의 분포를 보였으며, 전체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86$ 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86$ 이었다.

3.3.3 인성

인성은 Lee, Kang과 Kim[22]이 개발한 대학생용 바 롬인성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3개의 하위 영역인 인지, 정의, 행동영역으로 총 6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지영역은 23개 문항, 정의영역 25문항, 행동영역 12문항으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성수준이 높음을 뜻한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alpha=.96$ 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95$ 이었다.

3.3.4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Lee와 Jang[23]이 개발한 생애능력 측정도구 개발 연구 중 대학생/성인용 의사소통능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4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응답의 편중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 중 15문항은 부정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도구개발당시 Cronbach's $\alpha=.80$ 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90$ 이었다.

3.3.5 대인관계 유능성

대인관계 유능성(Interspersonal Competence)은 일반적 대인관계 상황에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Buhrmester, Forman, Wittenberg & Reis [24]가 개발하고 Kim과 Kim[25]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40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뛰어남을 의미한다. Kim과 Kim[25]의 연구에서 하위 영역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82-.91$ 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93$ 이었고 하위영역의 신뢰도 Cronbach's $\alpha=.70-.89$ 이었다.

3.3.6 현장실습적응

현장실습적응은 Park[20]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9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현장실습적응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α

$=.73$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70$ 이었다.

3.4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대상자의 자율성과 권리 보호를 위하여 연구 목적, 진행 절차, 익명성 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자유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도중에 연구 참여를 포기할 수 있고 중도포기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설문지 작성 소요시간은 평균 15분이며, 작성 후 설문지 수거함을 통해 수거하였다. 받은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숫자로 대상자의 정보를 식별하였다. 자료는 잠금장치의 보관과일에 따라 저장하며 본 연구자 외에는 접근을 제한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종료 후 3년 동안 보관한 후 소각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된 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조사 자료는 숫자화 하여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며, 비밀과 익명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3.5 자료분석

본 연구는 IBM SPSS 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에 대한 유의수준은 .05로 측정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실시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1은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문제 2는 Baron & Kenny의 3단계 절차를 이용한 다중회귀분석[26]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대상자의 제 특성

대상자의 제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은 평균 22.99 ± 3.85 이었으며, '20~21세' 108명(46.8%), '22~24세' 79명(34.2%), '25세 이상' 44명(19.0%)이었다. 성별은 남자는 49명(21.2%), 여자는 182명(78.8%)이었다. 종교 유무는 '없음' 145명(62.8%), '있음' 86명(37.2%)이었다. 휴학여부는 '예' 17명(7.4%), '아니오' 14명(92.6%)이었다. 동아리 활동여부는 '예' 84명(36.4%), '아니오' 147명(63.6%)이었다. 학년은 '3학년' 152명(65.8%), '4학년' 79명(34.2%)이었다. 거주형태는 '부모와 동거' 90명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31)

Variable	Categories	n(%)	Mean±SD
Age (year)	20~21	108(46.8)	22.99±3.85
	22~24	79(34.2)	
	≥25	44(19.0)	
Sex	Male	49(21.2)	
	Female	182(78.8)	
Religion	Yes	86(37.2)	
	No	145(62.8)	
School leave	Yes	17(7.4)	
	No	214(92.6)	
Circles activity	Yes	84(36.4)	
	No	147(63.6)	
Grade	Junior	152(65.8)	
	Senior	79(34.2)	
Residence type	With parents	90(39.0)	
	Dormitory	84(36.3)	
	Alone	54(23.4)	
	Other	3(1.3)	
Economic ability of parents	Top	20(8.7)	
	Medium	195(84.4)	
	Down	16(6.9)	
Personality	Extrovert	31(13.4)	
	Introspective	49(21.2)	
	Mixed	151(65.4)	
Motivation of choosing (Duplicate answer)	Ease of employment	116(50.2)	
	According to the scores	23(10.0)	
	Recommended	65(28.1)	
	Voluntary motivation	133(57.6)	
	Other	6(2.6)	
Department adaptation	Well adapted	124(53.7)	
	Difficult but trying to adapt	103(44.6)	
	Difficulty adapting	4(1.7)	
Number of professor counseling	0~1	75(32.5)	2.23±1.52
	2~3	131(56.7)	
	≥4	25(10.8)	
Last semester grade	< 3.5	146(63.2)	
	≥3.5	85(36.8)	
Human relationship conflict experience	Not at all	95(41.1)	
	Sometimes	132(57.2)	
	Frequently	4(1.7)	
Major satisfaction (Score)	1~4	28(12.1)	6.52±1.79
	5~7	132(57.2)	
	8~10	71(30.7)	

(39.0%), ‘하숙 및 기숙사’ 84명(36.4%), ‘자취’ 54명(23.4%), ‘기타’ 3명(1.3%) 순이었다. 부모님의 경제력은 ‘상’ 20명(8.7%), ‘중’ 195명(84.4%), ‘하’ 16명(6.9%)이었다. 자신의 성격은 ‘혼합적’ 151명(65.4%), ‘내성적’ 49명(21.2%), ‘외향적’ 31명(13.4%) 순이었다. 학과선택이유에 대한 다중응답분석결과, ‘자신의 자발적 동기’ 133명(57.6%), ‘취업의 용이성’ 116명(50.2%), ‘부모님, 선생님 등의 주위권유’ 65명(28.1%), ‘접수에 맞추어’ 23명(10.0%), ‘기타’ 6명(2.6%) 순으로 높았다. 학과적응정도는 ‘잘 적응하고 있다’ 124명(53.7%), ‘어렵지만 적응하려고 노력중이다’ 103명(44.6%),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 4명(1.7%) 순이었다. 교수면담횟수는 평균 2.23±1.52회이었으며, ‘2~3회’ 131명(56.7%), ‘0~1회’ 75명(32.5%), ‘4회 이상’ 25명(10.8%) 순이었다. 지난학기 평균평점은 ‘3.5 미만’ 146명(63.2%), ‘3.5 이상’ 85명(36.8%)이었다. 대인관계 갈등 경험은 ‘가끔 있다’ 132명(57.1%), ‘전혀 없다’ 95명(41.1%), ‘자주 있다’ 4명(1.7%) 순이었다. 전공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52±1.79점 이었으며, ‘5~7점’ 132명(57.1%), ‘8~10점’ 71명(30.7%), ‘1~4점’ 28명(12.1%) 순이었다.

4.2 대상자의 연구변수에 대한 서술통계

연구변수에 대한 서술통계 분석결과와 Table 2와 같다. 대학적응은 3.40±0.50점(5점만점)이었다. 대학적응 하위항목은 학업활동 3.91±0.52점, 개인심리 3.72±0.66점, 대인관계 3.43±0.72점, 사회체험 3.01±0.84점, 진로준비 2.84±0.81점 순이었다.

인성은 3.82±0.42점(5점만점)이었다. 인성의 하위항목은 정의영역 3.96±0.43점, 인지영역 3.85±0.46점, 행동영역 3.48±0.58점 순이었다.

의사소통능력은 3.59±0.35점(5점만점)이었다. 의사소통 하위항목은 타인관점 이해 3.78±0.56점, 정보수집 3.69±0.38점, 고정관념적 사고극복 3.67±0.68점, 자기 드러내기 3.66±0.52점, 경청 3.58±0.46점, 주도적 의사소통 3.41±0.57점, 창의적 의사소통 3.35±0.42점 순이었다.

대인관계 유능성은 3.65±0.45점(5점만점)이었다. 대인관계 유능성 하위항목은 정서적지지 및 조인 3.91±0.54점, 처음 관계 맺기 3.60±0.62점, 자기노출 3.59±0.52점, 대인갈등 다루기 3.59±0.48점, 타인에 대한 불쾌감 주장

3.56±0.61점 순이었다.

현장실습적응은 3.54±0.52점(5점만점)이었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231)

Variable	Range	M±SD	Skewness	Kurtosis
College adjustment	1-5	3.91±0.52	-.18	.33
		2.84±0.81	.10	-.12
		3.72±0.66	-.51	.46
		3.43±0.72	-.07	.18
		3.01±0.84	-.12	-.19
		3.40±0.50	.09	.11
Character	1-5	3.85±0.46	.08	.57
		3.96±0.43	.28	-.05
		3.48±0.58	-.11	.34
		3.82±0.42	.37	.28
Communicative competence	1-5	3.69±0.38	-.18	.80
		3.58±0.46	.26	.52
		3.67±0.68	-.68	.68
		3.35±0.42	.41	.30
		3.66±0.52	.26	-.02
		3.41±0.57	.08	.44
		3.78±0.56	-.06	.22
Interpersonal competence	1-5	3.59±0.35	.10	.96
		3.60±0.62	.17	-.18
		3.56±0.61	-.19	.01
		3.59±0.52	.06	.27
		3.91±0.54	-.50	.81
Field practice adaptation	1-5	3.59±0.48	.32	-.22
		3.65±0.45	.07	.27

Table 4.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adjustment, character,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field practice adaptation (N=231)

Step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	Adj-R ²	F(p)
1	Field practice adaptation	(Constant)	.75	.34	-	2.21	.028	.234	24.38 (<.001)
		College adjustment	.19	.08	.18	2.41	.017		
		Character	.23	.10	.18	2.18	.030		
		Communicative competence	.36	.10	.24	3.60	<.001		
2	Interpersonal competence	(Constant)	-.05	.22	-	-.22	.823	.563	99.71 (<.001)
		College adjustment	-.08	.05	-.09	-1.63	.105		
		Character	.43	.07	.40	6.34	<.001		
		Communicative competence	.66	.06	.52	10.25	<.001		
3	Field practice adaptation	(Constant)	.77	.32	-	2.37	.019	.295	25.04 (<.001)
		College adjustment	.23	.08	.22	2.98	.003		
		Character	.04	.11	.03	.33	.740		
		Communicative competence	.06	.11	.04	.54	.590		
		Interpersonal competence	.45	.10	.38	4.55	<.001		

p<.05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왜도는 ±2.0이하, 첨도는 ±10.0 이하로 정규분포의 가정을 만족하였다.

4.3 대상자의 연구변수에 대한 상관관계

본 연구의 가설모형에 포함된 측정변수의 상관계수가 .90을 초과하는 값이 없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현장실습적응은 대학적응($r=.38, p<.001$), 인성($r=.42, p<.001$), 의사소통능력($r=.34, p<.001$), 대인관계 유능성($r=.51, p<.001$)과 정적상관이 있었으며, 대인관계 유능성은 대학적응($r=.34, p<.001$), 인성($r=.60, p<.003$), 의사소통능력($r=.691, p<.001$)과 정적상관이 있었다 (Table 3).

Table 3. Correlation among the research Variables (N=231)

Variable	1	2	3	4	5
	r(p)				
1	1				
2	.65(<.001)	1			
3	.32(<.001)	.50(<.001)	1		
4	.34(<.001)	.60(<.001)	.69(<.001)	1	
5	.38(<.001)	.42(<.001)	.39(<.001)	.50(<.001)	1

p<.05; ¹College adjustment, ²Character, ³Communicative competence, ⁴Interpersonal competence, ⁵Field practice adaptation

4.4 매개효과 검증

대학적응, 인성, 의사소통과 현장실습적응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26]의 3단계 절차를 이용한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4와 같다.

Durbin-Watson test 결과 1.865로 2근방의 값으로 나타나 오차항 간 자가상관은 없었다. 또한, 표준화 잔차를 구한 결과 모두 ±3이내의 값으로 나타나 정규분포로 가정할 수 있다. 공선성 진단결과 공차한계는 .40~.56로 .10 이상이였으며, VIF는 1.78~2.49로 10이하의 값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없었다.

Step 1에서는 독립변수인 대학적응, 인성, 의사소통이 종속변수인 현장실습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으며, Step 2에서는 독립변수인 대학적응, 인성, 의사소통이 매개변수인 대인관계 유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Step 3에서는 독립변수인 대학적응, 인성, 의사소통과 매개변수인 대인관계 유능성이 종속변수인 현장실습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Step 1에서 대학적응($\beta=.18, p=.017$), 인성($\beta=.18, p=.030$), 의사소통($\beta=.24, p<.001$)은 현장실습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장실습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23.4% 이었다($F=24.38, p<.001$). Step 2에서 대학적응($\beta=-.09, p=.105$)은 대인관계 유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인성($\beta=.40, p<.001$), 의사소통($\beta=.52, p<.001$)은 대인관계 유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유능성에 대한 설명력은 56.3% 이었다($F=99.71, p<.001$). Step 3에서 대학적응($\beta=.22, p=.033$)과 대인관계 유능성($\beta=.38, p<.001$)은 현장실습적응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쳤으나, 인성($\beta=.03, p=.740$)과 의사소통능력($\beta=.04, p=.590$)은

Table 5. Mediating effect verification (N=231)

pathway	Mediating effect	z	p
College adjustment → Interpersonal competence → Field practice adaptation	-.036	-1.53	.126
Character → Interpersonal competence → Field practice adaptation	.154	3.70	<.001
Communicative competence → Interpersonal competence → Field practice adaptation	.199	4.16	<.001

p<.05

Table 6.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and total effect in path model (N=231)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Direct effect(p)	Indirect effect(p)	Total effect(p)
Field practice adaptation	College adjustment	.221(.003)	-.036(.113)	.185(.064)
	Character	.029(.740)	.154(.004)	.183(.039)
	Communicative competence	.042(.590)	.199(.011)	.241(.010)
	Interpersonal competence	.383(<.001)	-	.383(<.001)

p<.05

현장실습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현장실습 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29.5% 이었다($F=25.04, p<.001$).

대학적응, 인성, 의사소통과 현장실습적응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로 분석하였다.

대학적응은 매개변수인 대인관계 유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매개효과가 없었다. 인성은 1단계에서는 현장실습적응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쳤지만, 3단계에서는 현장실습적응에 유의한 영향은 없었다. 따라서 대인관계 유능성은 인성과 현장실습적응을 완전매개 한다고 할 수 있다. 매개효과 유의성은 Sobel test로 검증한 결과 대인관계 유능성에 의한 매개효과 (.154)는 유의하였다($z=3.70, p<.001$).

의사소통능력은 1단계에서는 현장실습적응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쳤지만, 3단계에서는 현장실습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대인관계 유능성은 의사소통능력과 현장실습적응을 완전매개 한다고 할 수 있다. 매개효과 유의성은 Sobel test로 검증한 결과 대인관계 유능성에 의한 매개효과(.199)는 유의하였다($z=4.16, p<.001$).

현장실습적응에 대한 대학적응, 인성, 의사소통, 대인관계 유능성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를 살펴보면 Table 6과 같다.

현장실습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대학적응($\beta=.22, p=.003$)과 대인관계 유능성($\beta=.38, p<.001$) 이었고, 대인관계 유능성이 현장실습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더 높았다.

인성은 현장실습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beta=.02, p=.740$)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대인관계 유능성을 통한 간접효과가 유의하였고($\beta=.15, p=.004$), 간접효과가 추가되어 총효과가 유의($\beta=.18, p=.039$)하였다. 의사소통능력은 현장실습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beta=.04, p=.590$)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대인관계 유능성을 통한 간접효과가 유의하였고($\beta=.19, p=.011$), 간접효과가 추가되어 총효과가 유의($\beta=.24, p=.010$) 하였다.

현장실습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값의 합한 총효과 값의 합을 살펴보면 대인관계 유능성($\beta=.38, p<.001$), 의사소통능력($\beta=.24, p=.010$), 인성($\beta=.18, p=.039$) 순으로 현장실습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적응, 인성,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 유능성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가 현장실습적응에 미치는 경로를 분석하여, 현장실습 적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현장실습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대학적응과 대인관계 유능성이었으며, 대인관계 유능성이 현장실습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더 높았다. 인성과 의사소통능력은 현장실습적응에 유의한 직접효과는 없었으나, 대인관계 유능성을 통한 간접효과가 유의하였고, 간접효과가 추가되어 총효과가 유의하였다.

본 연구의 대인관계 유능성은 인성과 현장실습적응을 완전매개하므로, 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인성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선행연구[27,28]와 인성과 대학생활 적응관계에서 대인관계가 매개효과를 보인 선행연구[28]의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또한, 현장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29-31]를 뒷받침하였다. 현장실습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나리오가 있는 시뮬레이션 실습을 통해 예비의료인으로서 대상자를 대하고 의사소통을 해보는 경험을 해봄으로써 대인관계에 도움을 주고 의사소통능력을 키우는 과정이 현장실습 나가기 전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현장실습적응을 높이고 나아가 인성을 갖춘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양과목을 통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봉사활동을 통한 인성함양과 대인관계 경험이 필요하다.

현장실습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값의 합한 총효과 값으로 볼 때, 현장실습적응에 대인관계 유능성, 의사소통능력, 인성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의사소통능력이 임상(현장)실습스트레스와 상관관계가 있고[17], 임상실습 시 가장 큰 스트레스는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이었다[27].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윤리적 딜레마 시나리오 상황을 제공하고 인성과 윤리적 리더십을 통해 문제해결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인성과 의사소통능력 증진 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시뮬레이션 수업으로 다양한 사례를 통해 대인관계가 증진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수업을 강화하고 대인관계 증진효과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의료인이 되기 위해 제한된 시간에 많은 전문지식을 습득해야 하고 임상현장실습이라는 다양한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는 예비의료인들에게는 졸업생 선배들이나 교수와의 만남으로 현장실습 적응에 조력을 해줄 수 있는 멘토를 만

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인성과 의사소통능력이 대인관계 유능성을 매개로 현장실습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학에서 바람직한 인성교육과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이 중요함을 뒷받침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일 대학의 의대생과 일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관계로 예비의료인의 현장실습적응 영향변수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추후 대상자를 확대하여 반복 연구할 것을 제안한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인과의 멘토링,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6.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적응, 인성,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 유능성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가 현장실습적응에 미치는 경로를 분석하여, 현장실습 적응 방안 프로그램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대인관계 유능성은 인성과 현장실습적응을 완전매개하고, 의사소통능력과 현장실습적응을 완전매개한다. 현장실습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값을 합한 총효과의 값을 살펴보면 대인관계 유능성, 의사소통능력, 인성 순으로 현장실습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대인관계 유능성, 의사소통능력, 인성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과 유사한 상황에서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수업, 임상실습 전 적응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하여 임상현장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는 현장실습적응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구성 시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S. V. Dunn, L. Ehrich, A. Mylonas, & B. C. Hansford. (2000). Students' Perceptions of Field Experience Professional Development: A Comparative Study,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9(9), 393-400. DOI : <https://doi.org/10.3928/0148-4834-20001201-05>
- [2] T. McKown, L. McKeon, S. Webb. (2011). Using quality and safety education for nurses to guide clinical teaching on a new dedicated education unit.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50(12), 706-710. DOI : <https://doi.org/10.3928/01484834-20111017-03>
- [3] Y. J. Kim, J. S. Choi, & T. J. Hwang. (1995). The Study of Placing Clerkship of Medical Students,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7(2), 169-175.
- [4] Y. K. Kwag. (2013). Effect of Self-Esteem,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5), 2178-2186. DOI : 10.5762/KAIS.2013.14.5.2178
- [5] B. J. Caroline, S. B. Sally, & I. V. Fiona. (2011). Empowerment and being valued: A Phenomenological study of nursing student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Nursing Education Today*, 31(1), 368-378. DOI : <https://doi.org/10.1016/j.nedt.2010.07.008>
- [6] S. Yang, H. J. Kim & K. P. Joo. (2006), A Study of Companies' Perception on University Education and Their Needs.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9(2), 146-170. UCI : G704-000976.2006.9.2.010
- [7] J. Harden, K. Kenall, & S MacBride-Steqrnt. (2016). *Teaching Social and Behavioural Sciences in Medical Education*. MedEdPublish, Dundee. DOI : <http://dx.doi.org/10.15694/mep.2016.000087>
- [8] S. S. Sim & M. Bang.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 Interpersonal Relations, and Adjustment to a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2), 634-642. DOI : 10.5762/KAIS.2016.17.12.634
- [9] N. K. Jeong & J. H. Kim. (2010). The Developing and Validation of Communication Ability Scale. *The Journal of creativity education*, 10(1), 85-109. UCI : G704-SER000002219.2010.10.1.004
- [10] K. Y. Lee & Y. T. Cho. (2016). Needs Analysis for Personality Education Orientation of th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haracter Education & Research*, 1(2), 1-18.
- [11] K. Y. Lee & Y. T. Cho. (2016). Needs Analysis for Personality Education Orientation of th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haracter Education & Research*, 1(2), 1-18. - UCI(KEPA) : I410-ECN-0102-2018-300-000242820
- [12] S. Hur. (2013). How Can Medical Students' Rapport Formation and Communication Skill be Improved?.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5(4), 261-263. DOI : 10.3946/Kjme.2013.25.4.261
- [13] C. Y. Jeong, & Y. S. Seo. (2017). Effect of the Convergence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for Communication self efficacy,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5), 271-280. DOI : 10.14400/JDC.2017.15.5.271
- [14] J. H. Park. (2013). Need of Character Education in

-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5(6), 3321-3332.
DOI : <http://dx.doi.org/10.4040/jkan.2008.38.1.152>
- [15] N. J. Je & M. Park. (2018). Impact on Department Adaptation of Field Practice Adaptation, College Adaptation, and Awareness of Death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10), 300-312.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10.300>
- [16] J. S. Park, & J. H. Lee. (2018). Relationship of Communication Skill, Depression,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10), 254-262.
DOI : <https://doi.org/10.5762/KAIS.2018.19.10.254>
- [17] Y. J. Kim, J. H. Park, & S. H. Ahn. (2012). The Effects of Early Child Care Teachers' Communication Competence,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Teacher Self-efficacy to Enlist Parental Involvement on Parent-Teacher Partnership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3(5), 71-89.
DOI : <https://doi.org/10.5723/KJCS.2012.33.5.71>
- [18] K. H. Kwak, S. O. Park, S. M. Oh, I. S. Seo, J. R. Lee, S. J. Park & B. J. Park. (2018). Factors Affecting Communication Ability of Nursing Students with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2(3), 11-21.
<http://knr.or.kr/academic/paperSearch2.php?vol=2&no=3>
- [19] E. Y. Yeom, & K. Seo. (2018). Influences of Interpersonal Problems and Character of Nurses on Quality of Nursing Service. *Journal of Korean Academic Nursing Administration*, 24(5), 445-454.
DOI : <https://doi.org/10.11111/jkana.2018.24.5.445>
- [20] F. Faul, E. Erdfelder, A. Buchner, & A. G. Lang. (2009).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 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4), 1149-1160.
DOI : <http://doi.org/10.3758/BRM.41.4.1149>
- [21] S. Y. Park. (2017).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Life Adjustment Instrument for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 [22] E. I. Jeong, & Y. H. Park. (200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Adjustment Scal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1(2), 69-92.
DOI : 10.17927/tkjems.2009.21.2.69
- [23] Y. S. Lee, H. Y. Kang, & S. J. Kim. (2013). A Validation Study of the Character Index Instrument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thics Education Studies*, 31, 261-282.
UCI(KEPA): I410-ECN-0102-2014-300-001559460
- [24] S. J. Lee, Y. K. Jang, H. A. Lee, & K. E. Park. (2003).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fe-skills :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Seoul.
<https://www.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PubForm.do?plNum0=3847>
- [25] D. Buhrmester, W. Furman, M. T. Wittenberg & H. T. Reis. (1988).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6), 991-1008.
DOI : <http://dx.doi.org/10.1037/0022-3514.55.6.991>
- [26] C. D. Kim & S. I. Kim. (2001). A Study on the Effect of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Improvement of Interpersonal Relations. *Student Study*, 35(1), 83-95.
- [27] R. M. Baron, &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DOI :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 [28] M. J. Jun, & E. K. Noh. (2018). The Convergence Study Effected of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Character,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Health-related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4), 433-442, 2018.
DOI : <https://doi.org/10.15207/JKCS.2018.9.4.433>
- [29] C. H. won, M. S. Yu. & M. J. Jun. (2018). The Converged Influence of Character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Dental Hygiene Student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6), 49-57.
DOI : <https://doi.org/10.22156/CS4SMB.2018.8.6.049>
- [30] M. K. Cho, & H. Jeong. (2018). A Convergence Study of the Effects of Empathy and Communication Skill on Clinical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11), 539-547.
DOI : <https://doi.org/10.15207/JKCS.2018.9.11.539>
- [31] E. Y. Yoem. (2017). The Influence of Communication, Competenc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Emotional Labor on Clinical Practice Stress among Nursing Students. *The Korea Content Society*, 17(4), 320-30.
DOI: 10.5392/JKCA.2017.17.04.320
- [32] S. Y. Yang. (2016).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n Clinical Practice Stress of the Nursing Students. *The Korea Contents Society*, 16(9), 286-96.
DOI: 10.5392/JKCA.2016.16.09.286
- [33] H. Ö. Altıok & B. Üstün. (2013). The Stress Sources of Nursing Students. *Educational Sciences: Theory & Practice*, 13(2), 760-766.
<https://files.eric.ed.gov/fulltext/EJ1017246.pdf>

제 남 주(Nam-Joo Je)

[정회원]

· 2016년 2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임신·분만, 수태 전 관리, 성교육, 여성건강.
- E-Mail : poo4757@naver.com

박 미 라(Mee-Ra Park)

[정회원]

- 2016년 8월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신생아, 임신·분만, 모유수유, 성교육, 피임
- E-Mail : minerva32@cs.ac.kr



화 정 석(Jeong-Seok Hwa)

[정회원]



- 2004년 9월 : 경상대학교 의학박사
- 2002년 3월 ~ 현재 :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관심분야 : 비뇨기계 중앙, 전립선 질환.
- E-Mail : seogee@gnu.ac.kr